



딸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위풍당당 여성 행진곡

손은진 · 조혜진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니터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와 이해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 대한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다루어지는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딸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 KBS-1TV(4.12) <KBS 뉴스 9>

여학생이 공부 더 잘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1 학생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평가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

▣ KBS-2TV(4.15) <지구촌 뉴스>

일본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어머니들의 근무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원이 등장. 우리 현실에 맞게 잘 응용한다면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올 법도.

▣ KBS-2TV(4.19) <주부 세상을 말하자>

여성 초선 의원에게 듣는다 - 새정치, 이렇게 하겠다

▣ SBS-TV(4.19) <백만불 미스터리>

2003년 공개된 짜바족 모계 사회 편 ;

가족 형태 : 원시 모계 사회-사랑은 해도 남성

과 함께 살지 않는다.

결혼 형태 : 일정한 결혼 상대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를 정한다.

상속 형태 : 장녀에게 상속

▣ SBS-TV(4.19)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 13%로, 학급회장, 고대 응원 단장 등에서도 여성의 역할 증가

▣ MBC-TV(4.21) <결혼하고 싶은 여자>

희숙 :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어딜 골라서 가요?”

금순 : “애는..... 나이 들어도 자기 일에서 인정 받고 출세한 여자들은 시집만 잘만 가더라. 요새 서른 넘어 시집 안 간 여자들이 좀 많은가, 어디.”

▣ 경향신문(4.3)

미(美) 하버드 대의 신입생, 여성이 남성 앞질러

▣ 경향신문(4.7)

김보민 씨, 국제 읍서버 탄생

▣ 중앙일보(4.8)

비례대표 후보 1번 여성 4인 좌담

▣ 동아일보(4.9)

최다미 중위, 공군 첫 여성검찰부장 탄생

▣ 동아일보(4.12)

황의선 송파영업본부장, 우리 은행 첫 고졸 여성본부장 임명

▣ 중앙일보(4.12)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실시(www.kigepe.or.kr)

여성이 여성 안 짚는 편견

▣ 동아일보(4.16)

16대 국회의원 당선에 여성 파워.

▣ 일간스포츠(4.17)

지역구 여전사들, 여성 투사들 당당하게 등원

▣ 중앙일보(4.19)

여성 의원 비율 13%로 꺾춤

▣ 경향신문(4.21)

여성부의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 자료에 여성이 가해자적 시각에서 제작되어 논란

▣ 중앙일보(4.21)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논란

▣ 경향신문(4.23)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 폐지 홍보 대사, 탤런트 권해효 인터뷰

▣ 동아일보(4.22)

이성남 국민은행 전 감사, 첫 여성 금융통화위원 탄생

▣ 경향신문(4.28)

성매매 등 여성 피해자에 '여경조사 신청권' 신설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위의 내용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4월 모니터 보고서 중 신문,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루어진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남녀차별적인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불러넣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를 선호하는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여성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지속적으로 답습하게 되면 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어 무기력감을 갖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여성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임신, 출산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여건 마련을 위한 인식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중에게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여성이 여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딸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